

배우며 듣는 클래식...

광주시향 GSO 오티움 콘서트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연주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유럽의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다채로운 특색을 담아낸 클래식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2회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GSO 오티움 콘서트 III 'South vs North'를 펼친다.

이날 공연에서는 북유럽의 거장 그리그와 시벨리우스, 남유럽과 지중해 반도에 있는 이탈리아의 파가니니와 베르디 작품을 해설과 함께 비교하며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휘와 해설은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맡으며, 비올리스트 김상진 이 협연자로 나서 기대를 모은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은 완벽한 테크닉과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인상적이며 호소력 있는 연주가 장점이 있다.

일찍이 동아 콩쿨 역사상 최초의 비올라 우승자로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독일 쾰른 국립 음대와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후 전세계 50여개국 100여개의 주요 도시와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그리그의 페르균티 모음곡 1번을 들어본다. 이 작품은 그리그

오는 3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비올리스트 김상진 협연 그리그 페르균티 모음곡 1번,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서곡 등



비올리스트 김상진

가 노르웨이 문호 헨리크 입센의 시극 '페르균티'의 부수음악으로 완성했던 26곡 중 8곡을 간추려 재구성한 관현악 모음곡이다. 북유럽의 애수와 서정이 전편을 장식하는 명곡이자 노르웨이 음악을 상징하는 명곡 중 하나다.

이어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버전으로 편곡된 이탈리아 작곡가 파가니니의 기타 4중주 제15번을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협연한다.

이 곡은 이탈리아 민속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소박한 선율과 리듬이 인상적이다.

전반적으로 비올라가 크게 활약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비올라현악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돼 연주됐다.

후반부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이 연주된다. 오페라 '나부코'는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왕 내역을 이야기한 오페라다. 애국적인 주제와 합창으로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있던 밀라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다.

공연의 대미는 시벨리우스의 '핀란드리아'로 장식한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핀란드의 자치권과 언어의 자유는 니콜라이 2세가 다스리는 러시아에 의해 심한 억압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시벨리우스는 정치색을 교묘하게 숨긴 작품 '핀란드리아'를 발표했다. 시벨리우스 특유의 서늘하면서도 다채로운 음향을 느낄 수 있고 특히, 곡 뒷부분이 주는 아름다운 선율은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8세부터 입장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ACC, 창제작 콘텐츠 협력 전시기관 모집

오는 30일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전시 콘텐츠를 공동 협력으로 전시할 국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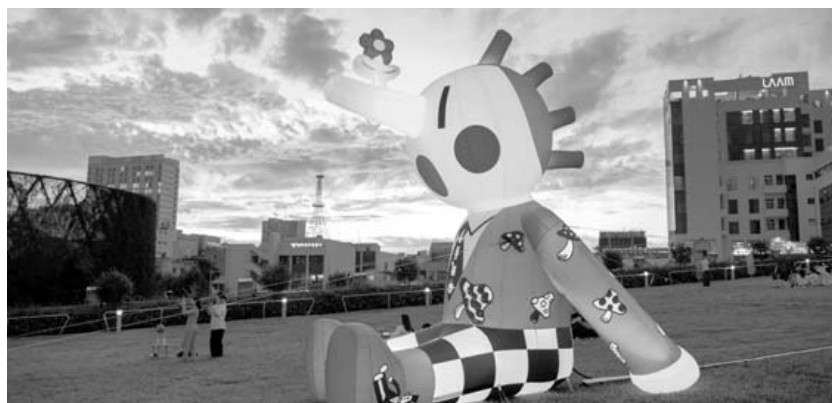
이번 협력 전시는 ACC 창제작 콘텐츠 중 ▲컨텐츠포리 아트 ▲미디어아트 ▲융복합 총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컨텐츠포리 아트는 기후 위기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포스트휴먼 상상별'

등 ACC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인기를 얻은 7종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아트 분야는 2021-2022년 ACC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 당선작과 ACC 커미션 작품 등 총 24종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예술과 과학의 결합을 보여주는 '루덴스토피아',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차원 너머' 등이다.

이어 융복합 분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탈놀이를 기반으로 창작한 이야기에 가상현실(VR) 기술을 결합한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버런'이 준비돼 있다.



이번 공모는 전시 시설을 갖춘 국내 문화예술 국공립 기관·단체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7개 안팎의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품은 선정된 기관의 전시 환경 및

선도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ACC재단은 작품을 지원하며, 선정된 전시기관은 전시장 조성과 전시 운영 및 홍보를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또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장희구 박사 (507)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送金鍾城元立(송김종성원립) - 동명 정두경
백산동북두강류 강상황운만수루(白山東北豆江流 江上黃雲滿成樓)
단향준전경미주 부지천지유수주(但向樽前傾美酒 不知天地有愁州)
백두산 동북으로 두만강이 흐르고
강위에 누런 구름 수루에 가득한데
술동이 술기울리니 근심할 줄 모르네.

천지에 근심스러운 고을 있는 줄 알지 못하네



이별이 짙어지면 마음으로 변한다고 한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섣뜻 고개가 끄덕여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섣뜻 맞다고 동의할 수는 없었다. 이별은 더 큰 아픔을 가슴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떠나는 사람보다는 보내는 사람의 서운함 한 줍과 재회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쁨 두 줄은 미성숙이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동북으로 두만강이 흐르는데, 두만강에서 피어오른 누런 구름 수루에 가득하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천지에 근심스러운 고을 있는 줄 알지 못하네(送金鍾城元立)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1597-1673)으로 조선 후기의 문인, 학자다. 1629년(인조 7) 장원 급제했고, 벼슬은 부수찬·정언·교리 등을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시문에 뛰어났고 풍자를 잘해 효종 즉위 초에 풍시 27수를 써서 상을 탔던 것으로 알려진다. 저서에 '동명집'이 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백두산은 동북으로 두만강이 흐르는데 / 두만강에서 피어오른 누런 구름 수루에 가득하다 // 다만 술동이 앞을 향해 좋은 술을 기울이니 / 천지에 근심스러운 고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김종성 원립을 보내면서'로 번역된다. 친지 김종성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김종성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으나 시인이 그를 두고 백두산과 두만강을 운운했다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고,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동북 삼성지방이나 함북 남양 어느 지방으로 생각된다. 이런 장소에서 헤어지는 마당에 술잔을 앞에 두고 긴 회포를 담아냈다.

시인은 우리의 국경지방의 산과 강을 거명하면서 누런 구름이 수루에 가득하다는 시적 주머니는 마냥 넉넉해 보인다. 백두산 동북으로 두만강은 흐르고 있는데, 두만강에서 피어오르는 누런 구름이 수루에 가득하다고 했다. 자옥한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구름에 가려 어두움이 깔리지만, 뜻에 맞는 두 사람 관계는 도탑기만 하다.

화자는 이별의 잔을 주고받는 술동이 그 친근함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 시상은 도통하다. 다만 술동이 앞을 향해 좋은 술을 기울이니, 천지에 근심스러운 고을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경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는 엄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元立: 아호인 듯, 白山: 백두산, 東北: 동북쪽, 豆江流: 두만강이 흐른다. 江上: 강 위쪽, 黃雲: 누런 구름, 滿成樓: 수루에 가득하다. // 但: 다만, 向樽前: 술동이 앞을 향하다. 傾美酒: 좋은 술을 기울이다. 不知: 알지 못하다. 天地: 천지에, 有愁州: 근심스러운 고을이 있다. 동시에 '鍾城'의 다른 이름.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